

‘강진 극장통길’ 새로운 관광명소 각광

청춘 인증샷·근대의상 무료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조성

강진군의 극장통길이 새로운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중앙로상가는 지난해 선정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근대거리로 탈바꿈한 극장통길 일원에 근대의상 무료체험장, 근대거리 포토존, 관광객 상품권 증정행사, SNS 업로드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해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근대의상 무료체험장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근대의상과 추억의 교복을 무료로 입어 볼 수 있으며 극장통길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색 문화체험 장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포토존은 강진의 옛 점포와



강진 극장통길 일원 근대의상 무료체험장.

추억의 물건들로 꾸며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낭만과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공간이 되고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또한 관광객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와 극장통길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즉석에서 5천 원 상당의 메탈포토를 인화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승욱 군수는 “청춘 극장통길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방문객 증대를 이끄는 이색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프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근대의상 무료체험은 10월 첫 주에는 추석 연휴기간인 다음달 2일과 3일도 운영 일자가 변경돼 운영된다. 모든 방문객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본으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고 발열체크를 받아야만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무안 전 주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준다

무안사랑상품권 1인당 10만원씩... 지역경제 회복 기대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기준일은 2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무안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만4387명으로 예상된다.

군은 연꽃축제와 청년축제 등 행사성 경비 22억원과 사무관리비, 공무원 여비 등 공공분야 경상경비 28억원 등 강도높은 세출예산 구조조

정을 통해 84억원의 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했다.

군은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을별로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지정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급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주요 방역수칙도 적극 홍보해 방역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무안형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 전 주민 마스크 1인당 3매 지급

추석 전 코로나19 대비 배부

영암군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마스크를 전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역마스크는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지를 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를 통해 1인당 3매씩 추석 전 지급된다.

이번 방역마스크 배부는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지역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영암군의 선제

적 대응이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추석연휴 집에서 보내기 캠페인과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이 요구된다”면서 “외출과 다중 이용시설 방문과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추진 전면

목포시는 귀성객과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관내 129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당직의료기관을 구분 지정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약국 116개소도 지역별 당번 약국을 운영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내 6개소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유사 시 진료 및 응급처치에 즉각 임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목포기독병원 등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6개소와 보건소는 코로나19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유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안내와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은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는 목포시보건소(277-4000),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완도 12개 읍면 작은도서관 건립 목표 달성

고급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1읍면 1도서관 조성

완도군은 지난 18일 ‘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고급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1억4000만 원(국비 9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건립 중인 고급 농어민복지센터 내에 70㎡의 규모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게 된다. 작은도서관은 내년 1월 공사를 시

작해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이다. 고급면에는 그동안 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완도읍이나 신지, 약산도서관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특히 차가 없는 학생들과 어르신들은 그마저도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도서관 건립이 절실했다.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면 주민들은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고, 독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독서갈증을 해소하고 책 읽는 지역 문화조성을 위해 ‘16년도 신지면 작은도서관 건립을 시작으로 ‘1읍면 1도서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 고급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 간 소통하고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진도 울돌목 ‘가족호텔’ 건립 추진

진도관광레저산업개발과 460억 투자협약 체결

진도군은 울돌목해역이 내려다 보이는 진도대교 녹진 관광지에 가족호텔 건립을 위해 ㈜진도관광레저산업개발과 총 4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진도관광레저산업개발 백형진 대표, 이승필 본부장, 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약식으로 진행됐다. 호텔 뷰 1597 건립 사업은 대지면

적 5,459㎡에 연면적 17,789㎡ 13층 규모(부속동 2동 별도)로 객실 규모는 190실(PET 동반 객실 포함)이다.

특히 인피니티풀장, 연회장, 뷔페레스토랑, 키즈카페, 남녀 사우나, 샴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어려운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설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진도군은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증가 등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호텔 뷰 1597이 건립되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해남 추석명절 취약계층 돌봄 적극 추진

효도 종합선물세트 전달·영상통화 연결 서비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고향방문 자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나기를 위해 해남군이 취약계층 돌봄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자녀 방문 등이 줄어들면서 외로운 명절을 보내게 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효도 종합선물세트를 전달한다.

선물세트는 식료품과 명절나기 식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로, 고위험 노인맞춤 대상자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를 비롯해 맞춤형돌봄서

비스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이 직접 어르신을 찾아 뵙고, 꾸러미를 전달하는 한편 자녀들과 휴대용 영상통화를 연결해 안부를 전할 계획이다.

영상통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사진과 문자도 전송해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게 된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이 취약한 어르신에게는 대체식을 배달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관내 노인 8,144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송편 나눔도 실시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해양치유완도
Marine Healthcare Wando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 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농·어업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봉사하겠습니다.

법학박사 : 김태일 배

믿음·정성·사랑으로 모든 약을 조제하여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메디팜·우리약국 약사 : 문대중 배

TEL. 061.554.5275